

黃翊 (Huang Yi)

**HUANG YI & KUKA**

# 예술과 기술의 눈부신 결합!

세계가 놀란 융복합 공연을 셀스테이지에서 만나다!

## 2017 셀스테이지 기획 공연

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현대 공연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 
해외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기획·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

‘예술과 기술의 만남’이라는 핵심 콘셉트 하에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, 그리고 2월 세 차례에 걸친 초청 공연 무대가 펼쳐집니다. 인간과 과학기술,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하는 공연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콘텐츠가 갖는 가시적인, 그리고 심미적인 가치에 대해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.

2016.09	2017.01	2017.02
 <p>2016. 9. 6 (화) - 9. 11 (일) 평일 8시 / 10시 / 12시 / 14시 주말 14시 / 18시 (18세 이상 관람가)</p>	 <p>2017. 1. 18, WED - 1. 22, SUN 수·목 8PM / 토·일 5PM 셀스테이지 (정액제로 40)</p>	 <p>2017. 02. 14 (화) - 02. 18 (토) / 수, 목, 금 8시 / 토 3시 셀스테이지 (정액제로 40)</p>
<p><b>YOUR LAST BREATH</b> curious directive</p>	<p><b>ROBOT</b> Blanca Li Company</p>	<p><b>Huang Yi &amp; KUKA</b> Huang Yi</p>

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

주 관  Kocca  
한국콘텐츠진흥원

운 영  Culture & U

대 표 박정수

팀 장 송종근

팀 장 서지훈

사 원 황도영

사 원 전소희

### 기 술

조명감독 공연화

영상감독 강낙현

음향감독 이한규

무대감독 디렉터스

### 제작지원

해외초청 포이어프로덕션

프로젝트매니저 박기문

통 역 온아시아

디자인 매그넷

### 공연장 운영 지원 STAFFSEOUL

총 괄 최웅집

기술감독 홍준석

무대감독 정찬미 이종훈 김동현

조명감독 정진철 맹우영

음향감독 권영호

홍보/티켓 이윤숙

하우스매니저 허은영

하우스진행 서형정 손지원 이은정

Special Thanks to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(Taiwan)



인간과 로봇  
예술로 교감하다

# HUANG YI & KUKA

## 슬프도록 아름다운 예술가의 자화상

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대만 출신 안무가이자 무용수 "Huang Yi(황이)"와 그의 파트너 "KUKA(쿠카)"가 매우 정교하며 놀라운 공연을 셀스테이지에서 선보인다.

2013년 오스트리아의 \*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(Ars Electronica Festival)에서 선보이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"HUANG YI & KUKA (황이 & 쿠카)"는 초연 이후 미국, 프랑스, 호주, 중국,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서 초청받으며 그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.

춤(예술)과 로봇공학(기술)이 조화롭고 치밀하게 결합된 공연은 관람하는 이들로 하여금 "움직이는 추상화"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할 정도로 시적이다. 작품은 인간과 로봇의 협업, 그리고 이 과정의 교감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.

2017년 2월, 처음 한국을 찾은 "HUANG YI & KUKA"는 불우했던 유년시절의 좌절과 그 속에서도 키워낸 꿈이라는 인간적인 소재를 인간과 과학 기술의 정수인 로봇이 함께 추는 춤을 통해 풀어낼 것이다.

*"로봇과 얼굴을 마주 보며 춤을 추는 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것 같다.  
인간의 감정을 로봇에 넣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."*

-Huang Yi-

\*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(Ars Electronica Festival) :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린츠(Linz)에서 1979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로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공연, 최첨단 미디어아트, 인공지능, 가상현실 등 미래적인 콘텐츠를 키워드로 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. 인구 30만의 소도시 린츠는 이 축제로 전 세계의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동시에 찾는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다.